

교회 목표

신한 예배  
한국로 말미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 주관 중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3:12)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2 충현교회

THE WEEKLY CH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달고 오묘한 그칠을 / 11월 22일 금요일

## 4. 만국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심

다신교적인 사고방식은 각각 그 지역과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종교성을 거부하며 여호와와는 항상 오로지 한 분이시라고 창조자요 통치자는 천지의 주재이심을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다신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있는 듯한 입장을 취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사였던 '압다'가 다신교적인 입장에서 말한 것처럼 보인다(삿 11:24). 그러나 이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면 '압다'가 다신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발견하게 된다. 오히려 그들의 신을 바웃고 있으며, 땅들과 관련된 신들의 가르침을 오히려 묵살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게 된다(삿 11:25~26). 또 다른 예는 아람의 장관들이 왕에게 자신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를 다신교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왕상 20:23). 그러나 아람 장관들의 주장 역시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아람인들의 생각인 뿐이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초점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신교적인 사상을 경계하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神)에게 패배한 것으로 판단할 것을 우려하며, 멸망의 이유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르친다(사 42:24~25). 그러나 '이사야'는 이러한 것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성과 위엄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초청과 최종심판을 계속적으로 묘사하였기(이사야 40장~55장).

또한 그는 아방나모 우상들의 존재와 우물결에 대하여 확신할 것을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는데(사 41:21), 세 가지 조건을 질문함으로써 이방 신의 헛됨을 지적하고 있다(사 41:22~23). 첫째는 우상들이 과거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우상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는 것이며, 셋째는 어떠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모든 질문은 우상들에 대한 실제성과 또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가를 증명해 보라는 요구이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내가 보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없고 대답할 자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같이 허탄한 것뿐이니라"(사 41:28~29).

그리고 '이사야'는 46장~48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들을 심판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참고 롬 5:2, 5:14). '바벨론'의 신, '벨'은 '주'(을라라는 뜻으로서 '바벨론'의 수호신인 '바르'의 별명인데, 바벨과 풍경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노'는 물을 주관하는 자연신으로서, '벨'과 같은 풍경을 '노'의 수호신이다. '이사야'는 46장에서 '바벨론'의 수호신인 '벨'과 '노'가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에게 수지와 멸망당하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그 신들의 헛됨과 하나님의 실재를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40장~48장에 걸쳐서 살아 계신 하나님과 모든 우상들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면서 우상들을 향하여 바웃고 있

다(사 44:9, 15, 17, 19). 진실로 우상이야말로 눈이 없으며 무지하여 저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사야'는 44장 7절에서, 우상숭배자들에게 어느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해 보라고 반문함으로써 우상들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있다. 비록 아방인들이라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족속과 만방의 주인이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이사야'에게 예언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사 41:25, 26, 45:1).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알려줌으로써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며, 그가 모든 인류와 역사를 주도하시는 주관자이시며,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진실로 모든 열방과 우상은 형편 없다(사 40:15, 17, 22). 그러므로 "그러한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였으며 무슨 형상을 비기겠느냐"(사 40:18)라는 질문에 대하여, 단지 '아무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대답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처럼 '이사야'는 먼저 우상들을 향하여 경멸과 조롱을 쏟아 부었고, 46장에서는 '바벨론'의 신상(神像)들을 집적처럼 묘사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도 옮겨지는 분이 아니시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옮기시는 분이심을 말해준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증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즉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산 중인데"이라고 확언해 주시면서, 일어나고 불거주었던 것인데(사 43:10~13).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외쳤던 선교의 행위인가? 단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방으로부터 불러모으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하여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모든 사람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사 45:6). 따라서 만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자신의 구속자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온 세계의 하나님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사 54:5).

20세기 초기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사야'의 메시아가 선교의 메시아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 신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유일성을 알아야 한다'는 선교적 관점을 이해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는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뜻봐도 이들은 출애굽부터 '이사야' 40~55장이 쓰여질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야방을 향해 찾아가야 할 능동적인 책임보다는 열방이 하나님을 찾아와야 한다는 수동적인 역할을 가짐으로써, 그 책임을 야방인에게 떠넘기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사야'라는 전체가 세계를 향한 선교를 보여준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이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와 종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호와와 종의 규례와 법도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에 대하여 가르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역시 '이사야'의 역할은 '적극적인 중언'이 아니라 오직 중언의 역할이라는 견해를 표명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책임을 또 다시 수동적인 위치에 놓고 말았다.

## 자 나 수 오 해 배 해 시 지

### 간절한 기도자 (눅 18:1-5)

"항상 기도하고 낙담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르치시니 어떤 도시에 사람을 두루하여 이르시기를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시라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루하여 이르기를 두루하사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하되 얼마간 후에 와서 나를 고르기를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담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 진실로 기도는 낙담을 몰아내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낙담의 빠진 수박이 없으리라고 그렇다. 우리가 알거나 하고의 위력은 참으로 놀랍다. 진실로 누가 간절한 기도자를 만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기도는 세상에서 천대와 멸시와 인신여부를 받는 자들로 하여금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며, 어느 누구도 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를 통해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잠 21:12~29). 이러한 원리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불쌍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전쟁과 같은 상황이 통상 드러난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판관을 향하여 간절하게 요청하는 과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녀는 안고 싶지 않은 대상이요 낯선 자였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있으며 또한 그대도 이 이상 낯선 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를 갇힌 그대로 보지 될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권세를 얻은 자들이요(골 2:12, 3:12).

또한 복음을 하라는 도대로 재판관에게 찾지만 그녀는 결코 움직이지 못한 자이지만, 우리는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하는 의로운 자들이라(히 4:16). 그리고 그녀는 대담하게 곧은 마음으로 재판관에게 나아갔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게 나아하는 자들이다. 그러하여 그분께 모든 열락을 다 할 때(마태복음 5:7, 9)를 바라보고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마태복음 3:2), 크고 비밀한 일을 보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게 된대(마태복음 3:33). 아울러 그대에게는 다반사였으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가장 놀라우신 '종교자'가 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해 대언하는 분이시며(요일 2:1),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의신 중보자이시니(딤후 2:25). 언제나 항상 살아 계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대히 7:25).

이처럼 본래 그대에게는 약속도 격려도 어떠한 보좌도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은총과 축복의 약속이 있다. 그분만 믿고 기도, 절망의 안개 되도, 두드러진 열매는 분명할 것이다. 놀라우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며(마 14:14),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신 배부심도 보았이 이(마 7:9~11).

언타깝게도 그녀는 재판관과 정해진 시간, 꼭 손이 없는 시(시간만) 만나러 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분은 우리를 낙하해 구원하시니(고후 5:14)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사 58:9),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를 원하시니(마 11:19)의 주님이시니(마 3:20).

그리고 불행히 그의 요구는 재판관에게는 귀찮은 책이었으나,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의 요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이다. 하나님은 자에게 하나님과의 친제와 응답에 대해 믿는 자들에게 가까이 상 주시며(히 11:6), 착한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소다(눅 18:7).

진실로 과부의 간절한 기도, 가슴을 찢는 세리의 기도 그리고 소경의 외침은 발발 부르는 택하신 자들의 고통을 풀주시니(마 18:7), 착한을 의롭게 만드시며(마 18:14) 닫힌 눈을 열주시니(마 18:43),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



Today's Bible verse concerns God's statement to Noah. At the time,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on the earth, so great that "every intent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Gn. 6:5). The violence was so awful that God warned Noah that He was going to destroy them with the earth (see Gn. 6:13). The important thing is that God's warning included seven days. After the seven days, the whole earth, every living thing was destroyed. But He gave seven days time. Not only that, consider that it took Noah more than one hundred years to make the ark.

God gave this violent earth the opportunity to make an ark. In other words, without any means of salvation after His judgment, He provided us with time beforehand. Look at the history of God's saving plan. In the book Exodus you find Moses warning Pharaoh about the tenth plague, the plague of death that would kill all the firstborn in the land of Egypt tomorrow. The warning came with time. Pharaoh still had time to save himself. God gave him time to repent at the Red Sea, the Israelites listened and obeyed Moses and were saved. The entire Egyptian army was destroyed (see Ex. 14:28). At Sodom and Gomorrah God gave the family of Lot the opportunity for salvation. At Jericho, God gave the harlot Rahab and her family the chance of salvation. Today God is calling every individual to hear His warning, "He who has ears, let him hear" (Mt. 13:9). Isn't this an important opportunity? All the seven churches in Revelation receive the blessing of time,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Rv. 3:6). Always, God gives a warning. Always, God provides a chance to stay alive. Even the judgment in the Garden of Eden came with a future chance (see Gn. 3:15).

The great flood of Noah's day would wipe out the whole world, but God still gave seven days for repentance. No one listened. They even had the opportunity to see and hear Noah's 100 year sermon. As the hammer hit each nail that built the ark with the truth that God was going to punish this earth, the people laughed. The Bible tells us, "By faith Noah, being warned by God about things not yet seen, in reverence prepared an ark for the salvation of his household, by which he condemned the world, and became an heir of the righteousness which is according to faith" (Heb. 11:7). God not only gave the people of this earth during Noah's time a warning but He gave them an ark for salvation. Without the ark there was no way to survive. There's always a way to live. Zaccheus found the way,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Lk. 19:9). Jesus gave Himself for our sins so that He might rescue us from this

# AFTER SEVEN MORE DAYS

(Genesis 7:4)

*"For after seven more days,  
I will send rain on the earth  
forty days and forty nights;  
and I will blot out from the  
face of the land every living  
thing that I have made"*

present evil age, according to the will of our God and Father, to whom be the glory forevermore. Amen" (Gal. 1:4-5). Praise God for this living way and opportunity! For this is the only chance of salvation today.

Noah was a preacher in a cursed land. Interestingly, the man who lived longest on this earth was Methuselah, living 969 years. Methuselah was Noah's grandfather and his great grandfather was Enoch, who walked with God and God took. Now Noah lived with his grandfather for 600 years. He heard from him about his great grandfather Enoch, how he walked with God and didn't die but went to heaven. Not only that, but while Noah was building the ark and perhaps experienced times of discouragement, he had his grandfather around to give him encouragement. Noah's faith had to be greatly influenced by his grandfather's presence. While the people laughed at the righteous preacher's building actions, scoffing at him that there weren't any clouds, Noah kept on righteously hammering for 100 years.

Now, comes the urgent warning. Only seven days left after the passing of one hundred years. Everyone's laughing at the man building an ark in the middle of a desert. But God told Noah to enter the ark, even though a drop of rain hadn't fallen (see Gn.

7:1). Seven days before the big event, he walked into the ark. Without faith he couldn't have built it or entered it. He listened and obeyed. He did what God called him to do. The Bible tells us, "The night is almost gone and the day is near" (Rm. 13:12). Here's our warning! There's only a short time. "Do not complain, brethren, against one another, so that you yourselves may not be judged; behold, the Judge is standing right at the door" (Jam. 5:9). "Let your gentle spirit be known to all men. The Lord is near" (Phil. 4:5). God is going to destroy this earth, but He's giving us a last chance. If someone listens, they can be saved.

Jonah preached to the sinful city of Nineveh, "Yet forty days and Nineveh will be overthrown" (Jon. 3:4). Nineveh repented. My dear friends, the Bible shows us many exact examples of God's warning and judgment. God gave us Jesus Christ and our cross to save our lives. The great flood of Noah's day wiped out the whole world. God's final judgment is coming to this earth, but He's given us the warning. He's given us a miraculous way to be saved. What's your current condition? Have you repented? Are you like the people from Noah's time, laughing and scoffing at the preacher? They had only seven days left before the whole earth was destroyed. We don't know how many days we have. Listen up! Listen to God's Word, "Know this first of all, that in the last days mockers will come with their mocking, following after their own lusts, and saying, 'where is the promise of His coming?' For ever since the fathers fell asleep, all continues just as it was from the beginning of creation." For when they maintain this, it escapes their notice that by the word of God the heavens existed long ago and the earth was fanned out of water and by water, through which the world at that time was destroyed, being flooded with water. But by His word the present heavens and earth are being reserved for fire, kept for the day of judgment and destruction of ungodly men" (2 Pet. 3:3-7). The day of judgment is approaching. Instead of water this earth is going to experience fire! What is your condition? Are you the same as the people of Noah's time or are you a member of Noah's ark? Are you going to get in and listen, obey, and remember that time is short? Even the non-Christian people of this world know that this earth is coming to an end. If you are a believer and believe what the Bible says about Jesus' second coming, are you prepared? The Holy Spirit says, "Today if you hear His voice, do not harden your hearts" (Heb. 3:7). Please don't harden your heart. Let God's Word soften it, so that you can receive His gift of salvation. Amen. 🙏



## 칠 일과 일 백년 동안의 기회

오늘의 성경 본문은 노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때 인간의 악함은 극에 달하여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창 6:5)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6:13 참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는 칠 일의 기회를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칠 일 이후에, 땅 위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칠 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뿐만이 아니라,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 일 백년보다 훨씬 많은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께서서는 이 강포한 세상에 방주를 만들기 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후에는 다른 어떤 구원의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들에게 미리 심판을 피할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열 번째 재앙, 즉 내일이면 애굽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죽게 될 것이라고 재앙의 재앙을 경고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경고의 시간이 되었음에도, '바로'는 여전히 스스로 구원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Red Sea)'에서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했으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군대는 멸망했습니다(출 14:28).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롯의 가족들에게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각각의 개인들을 향하여 경고를 들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마 13:9).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축복된 시간을 누렸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 3:6).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예비하십니다. '예레'의 동산에서 심판하실 때마저도 앞날에 대한 기회를 함께 주셨습니다.

## 경고와 피할 길

노아 시대의 큰 홍수는 모든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도록 칠 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00년 동안 노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진리를 가지고 방주를 짓기 위해서 땅으로 모을 내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히 11:7).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 동안에 세상 사람들에게 단지 경고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도 주셨습니다. 방주만이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방주가 있었듯, 구원의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사계오는 그 길을 발

# 칠 일 후에

(창 7:4)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김성판 목사

견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눅 19:9).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갈 1:4-5). 이러한 생명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유일한 구원의 기회입니다.

## 노아의 믿음

노아는 저주받은 땅에서의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므두셀라'로 969년을 살았었습니다. '므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였고,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그의 할아버지와 함께 600년을 살았는데, 할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 갔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동안에 아마 낙심의 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는 노아의 겉에서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의 할아버지의 생전을 통해서 큰 영향을 받았기에 배를 짓는 동안, 바구름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조소를 보내도 노아는 100년 동안 강직하게 땅 지조를 계속했습니다.

## 마지막 경고

자, 이제 경고가 매우 긴박해집니다. 일 백년의 세월이 흘렀고 오직 칠 일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사람

의 비웃음이 광야의 한 가운데서 방주를 짓는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7:1).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칠 일 전(前)에,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명하신 것들을 모두 행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롬 13:12). 이 말들은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단지 조금의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약 5:9).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렐 4:5).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든지 듣기만 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후의 심판과 구원

'노아'가 죄악의 성 '니느웨'에 "자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라고 선포했습니다(욥 3:4). 그 선포를 들은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사탕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하여 정확한 실례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큰 홍수는 모든 세상을 씻어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 세상을 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경이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아니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경고하는 설교자를 비웃거나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모든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 단지 칠 일만을 남겨놓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날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감람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남아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회회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그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벧후 3:3-7). 심판의 날이 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물대신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똑같은가요? 아니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한 사람과 같은가요? 방주에搭정입니까?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세월이 짧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정입니까? 이 세상의 비(非)그리스도인 마저도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자라면, 또한 성경이 예수의 재림에 대해 말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준비하시겠습니까? 성경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든지...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히 3:7-8).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만일 마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단 및 기도제목

## 방글라데시

17교구 단기선교단(11월 27일-12월 5일)

다카, 보그라, 소나타라, 시브간즈, 마하팅가 지역

## 현재 지역 중인 선교단

| 부서  | 지역지    | 날 짜               |
|-----|--------|-------------------|
| 4교구 | 우즈베키스탄 | 11월 19일(화)-27일(수) |
| 8교구 | 스리랑카   | 11월 19일(화)-27일(수) |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단기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노방전도) 성령께서 힘 주시도록.
2. 각 지역을 정탐할 때, 성령의 지혜로 그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3. 방글라데시 언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지만 통역 없이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역기간 동안 그들의 언어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분명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매일 시간을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무슬림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 11월 25일(월)

## 키자흐스탄의 알마티의 무슬림들

키자흐스탄의 수도인 알마티에 사는 사람 중 절반은 무슬림이다. 이들은 16세기 이슬람 사마니즘으로부터 전한 유목민들이지만 이들의 믿음은 매우 강하다. 이곳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복음전파보다는 평화 관계에 관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다. 새로운 종교법으로 인해 사역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다.

1. 복음전파를 막는 새로운 종교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교사와 현지신자들이 성령의 은혜로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알마티가 선교 중심지역으로 성장하여 자국민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이들이 다른 이슬람 국가와 주변 중앙아시아 이슬람 나라 및 중국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11월 26일(화)

## 스코틀랜드 글라스고 시(市)의 무슬림들

글라스고 시에는 많은 무슬림 피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피난민 공동체는 파키스탄 피난민들이다. 이들은 심각한 가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1. 피난민 공동체에서 믿는 자가 생기는 것에 감사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글라스고 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무슬림 피난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자.

## 11월 27일(수)

## 인도 이즈메르의 퀴쉬티 수피들의 무덤

인도 남부에 있는 이 무덤은 무슬림들과 힌두인들의 우상숭배의 대상이다. 이 무덤의 주인은 생전에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거짓 사실들은 인도 남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다(출 86~7, 16~19).

1. 많은 무슬림들이 그 사원에서 헌신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무슬림과 이웃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히 선포하도록 기도하자.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 무슬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자.

## 11월 28일(목)

## 시에라리온

10년의 내전으로 인구의 1/30이상이 이웃나라로 탈출하는 가난한 나라 시에라리온 전통적 토착종교와 종교 혼합주의가 만연한 시에라리온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복음화된 나라이지만 무슬림들과 크리스천이 교회와 모스크 양쪽에 참석하고 있다. 이는 두 종교가 겹치고 밀기 때문이다.

1. 이 나라에 말씀이 울바로 선포되도록 기도하자.
2. 이곳의 크리스천과 무슬림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고 그분을 전파하도록 기도하자.

## 11월 29일(금)

## 투르크멘 공화국

투르크멘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악하게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나라들 중 하나이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존재감을 압수당하여 심한 고문을 받는다.

1. 핍박과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하자.
2. 투르크멘의 이슬람 정부 고위 권력자들, 지역 관리자들, 경찰, 그리고 이슬람 지도자들,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11월 30일(토)

## 이라크 무슬림들

이라크는 인구의 95%정도가 무슬림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독재 정권의 압박과 사회혼란으로 인하여 무슬림과 크리스천 모두 두려움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1. 강한 압력적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무너지고 무슬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이라크의 크리스천들이 고통 중에서도 힘을 얻고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도록 기도하자.

## 12월 1일(주일)

## 말레이시아

국보수 무슬림이 전 인구의 55%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에 무슬림들은 말레이시아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비무슬림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수많은 청소년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 해매고 있으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적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1. 극소수의 교회들이 무슬림들에게 강한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대담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하자.
2.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기도하자. 또한 이들에게 복음 전할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자.



## 한 영원한 제사(히 10:11~25)

송 옥란 (청년1부)



히브리는 유대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글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스 저자는 그들이 마음 속 죄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죄 해결을 위해 제사를 제정하셨듯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영원한 제사의 제물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원히 기록하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행위를 보태려 한다면 그 죄는 더 이상 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나는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행위로 마음 속 죄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필요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와 우리 가족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청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이 구원 얻는 참 믿음이며,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종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 이러한 사실을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종성한 삶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기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통해 아름답게 역사하시길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 그에게 나아가자(히 13:12,13)

이 강 희 (청년1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히 13:12,13).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참으로 단순하고 쉬운 질문이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 안에 계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또 다른 곳, 영문 밖에 계신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은 정말 영문 밖에 계실까? 정말 주님은 고난 받는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일까?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 생각은 계속 이어졌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을 이미 나는 나에게 이러한 질문은 당황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떨칠 수 없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좇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오늘 내가 본 나의 모습은 예수님은 참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은 싫어서 자주 예수님께 정말 고난 받으셨다고 묻는 편이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물음들이 이어졌다. 주님은 영문 밖에 계시는데 나는 어디에 있는가? 또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영문 밖으로 가는 길은 주님께서 지신 그 능욕을 지고 가야하는 길인데 나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주님은 영문 밖에서 나를 부르시는데 나는 능욕을 지기 싫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머뭇머뭇하는 것 같았다. 내가 좋아하는 주님께 가고 싶기는 하지만 가는 길이 너무 험물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내 모습. 갑자기 예수님께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도 고난은 되도록 오지 않길 바라고, 만약 고난이 온다면 고난을 만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참아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 가는 길에는 고난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 뜻은 그를 볼줄았더라(룻기 1:1-19)

사사 시대에 흉년으로 인해 한 사람이 유다 베휈레them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와 모압 지방에서 우거하였다. 그 사람이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는 나오미요 두 아들은 말론과 키론이다. 이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유하다가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뜻을 아내로 맞았다. 그러나 두 아들이 죽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게 되고 모압 지방을 떠나려 한다. 모압 지방을 떠나기 전,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각각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고 권고하고 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두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거부한다. 현실적인 말로 나오미가 재차 권하자 그들 중 오르바는 떠나지만 룯은 좀 더 크게 행동한다.

여기서 나오는 성경 표현을 살펴보면 나는 아주 흥미로웠다.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룯은 그를 볼줄았더라"에서 '볼줄았더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고 감이 잡히지 않았다. 영어 성경에서 'but Ruth clung to her' 라는 절 가운데 clung이란 단어는 cling의 과거형인데 뜻이 '착 달라라'붙는다. 고백밀착하다'였다. 룯은 나오미에게서 떨어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나오미에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16-17)라고 이야기한다. 룯의 단호한 결심과 의지는 나오미도 막지 못했다. 자기 지방을 떠나며 가족도 다시 볼 수 없고 친구들과 만날 수 없을 텐데 어쨌든 굳이 자신의 고향도 아닌 낯선 곳으로 자정하여 따라갔다. 그냥 따라간 것도 아니고 어머니와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따라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모압의 여인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직업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

이 이방 여인의 마음을 이토록 강하게 이끄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룯은 이방인이었다. 성경에서 룯을 수식하는 단어는 모압 여인이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을 통해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 룯이 나오미를 따라 베휈레them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강하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여인으로 기업 무를 자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탄생하실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러야 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이며 못난 인간이라는 마음에 두려워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내 자격과 능력은 정말 보잘 것 없었다. 하지만 룯기의 말씀을 묵상하니, 룯도 구원 받은 자였다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서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붙들었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으니 이 힘과 의지로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착되어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뽀뽀를 치기 원한다. 내게 조금만 힘만 있어 있으면 쉽게 무너지고 흔들리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룯을 선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 은혜가 오늘 내게 임하였음을 믿고 감사드리다.

김 광 미 (청년1부)



## 성도의 죽음을 준비하기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죽어가는 사람들은 버림받다는 불만에 휩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어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버림받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으므로, 그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죽어가는 자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육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품에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주의 품으로 와야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 언을 치유하기 위해 함께 있어 주십시오. 육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은 주 안에서 불행, 고난에 주님의 품에 가는 것을 잊지 않게 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은 함께 있는 성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볼 것입니다.

(권효섭 기자)



## 열정(熱情)

매가 지면  
하늘 보좌를 버리실 그때 겸손(謙遜)  
아브라함에게 닿아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을까요?  
약속대로  
말없이 약한 몸 입신시 그때 순종(順從)  
어부들로 하여금  
배와 그물, 아비까지 버려두고  
떠나게 했을까요(막 1:20)?  
  
내가 그대를 안다함은  
아가페(AGAPE)!  
사랑은  
우리네 천한 몸 체험케 하셨으며(히 4:15)  
용서는  
거친 나무 끌어안고 길 잃이를 잡드시게 하나  
이다(마 27:50).

사랑하는 이여!  
영혼에 드라우신 그대 안식(安息)  
하늘과 땅을 잇고,  
그대 열정(熱情)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으시기에  
나는 ...  
나를 버리고 그대를 얻으며  
그대를 얻었기에 나를 버림으로,  
마침내  
천부(天父)와 약한 자(者) 사이에서  
심자가로 명든 아예  
눈물로 씌는  
천국의 신부(新婦)가 되었나이다.

## 「한 길 가는 순례자」 중에서

### 시편 123편

시편 123편이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서 종의 모습인 '섬김'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새롭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다 읽어보면, 자신이 주의 자비가 필요한 종으로서 주인의 긍휼을 사모하고 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확실한 능력과 재능을 보장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 그러나 생각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 때문에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눅 11:9). 게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음을 상기하면서 그 분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부러워할 좋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하여 종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 그 분을 묵사시킨다면, 다시말해 자신의 편리함과 이익을 위해 주분복을 요청하듯 한다면 실로 그러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되심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종이 되겠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주를 향하는 종의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섬김의 또 다른 요소는 우리의 기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주인을 향하여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던 말입니까? 그것은 ‘궁휼’입니다. 궁휼에 대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어떤 것을 기어이 이루겠다는 시도와도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갈망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혹은 “저의 신념과 보상을 배부르소서” 아니면 “저의 약해짐을 말하십시오, 그래야 맘이 편하겠나이다”라는 요구 대신에 “궁휼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분의 주권 아래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처럼 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내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의 자세를 취할 때, 놀랄만한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는 역설적 진리를 맛보게 됩니다.

####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고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섬김에 필요한 것은 ‘민첩성’입니다. 모든 시대와 역사를 막론하고 속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자유를 부르는 곳에서도 조차 돈과 명예와 일과 소비 등의 노예로 속박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어떤 속박도 받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려는 허상(虛想)에서 벗어나서, 망설임없이 참된 주인 밑에서 그를 섬김이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에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떨쳐버리고, 주께로 신속하게 달려가는 민첩성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자세’를 산 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종들에게는 “평안한 자의 조소와 고만한 자의 멸시”(시 123:4)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에는 그분 앞에 가야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하는 고난들에 대한 조소와 멸시 그리고 바닷물이 흘러옵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종들은 그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위협과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능히 건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일함과 쾌락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신속하고 민첩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편집)

## + 양호실

**11교구 강석운 집사(남77세)** 폐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장유립 성도(남63세)** 간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3교구 김귀준 성도(남65세)** 당뇨와 만성 신부전증으로 수 년 간 병석에 있습니다. 환우와 가족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7교구 강종열 집사(남50세)** 바이러스로 인해 뇌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의식불명이었다가 회복되었지만, 몸이 마비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환우와 가족들이 오히려 이 어려움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환우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다음 주일 찬송

### 421장 “나는 갈길 모르니”

이 찬송은 늘 익명으로 찬송가를 썼던 에드워드 호퍼(E. Hopper, 1816~1888)목사가 1871년에 담임하고 있던 ‘바다와 육지 교회’의 많은 선원들을 위해서 작사하였다. 작곡은 존 에드워드 골드(J. E. Gould, 1822~1875)가 몸이 약하여 건강회복을 위해서 아프리카 알레리노 때까지 전에 작곡하였다.

- 1절: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 2절: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 3절: 이길일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 4절: 믿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첫 박자(첫8분음표와 16분음표)가 항상 못갖춘 박자(약박자)이지만 약간 느르듯 이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다음 마디 첫박자(강박자) 제4분음표에서는 그 높낮은 음을 내려놓듯이 풀어가면서 포에이즈(약구)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셋째 단은 항상 둘째단의 가사를 그대로 반복하므로 둘째단보다 부드럽게 에코처럼 처리해야 가사 반복에 따른 중복 강조의 의미를 더 잘 느낄 수 있다. (찬양위원회)

##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 “오손자” 성도를 소개합니다



저는 성동구에 살고 있으며 1남1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은 천령교회 집사로 봉사하고 있고, 친정 동기간이 모두 고인인데 그분들이 저를 전도하기 위해 많은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딸 아이가 중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까지 천령 교회 교인들이 나와 전도하는 것을 보고 남편이 다니는 교회이기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니 날, 큰 교회당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친절하게 안내받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부르는 찬양이 웅장하고, 새가족부 집회에서는 새로 온 성도들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교육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으며, 성경 말씀을 끝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기뻐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 하고자 합니다. (한숙경 통신원)



## 사랑하는 우리반

김 순 화 (집사, 중등3부 교사)



중등3부 학생들과 공부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주 한 번 이상 학생들에게 전화를 하여 한 시간에 일어난 학교생활, 가정 생활 등 여러 일들을 물어보며, 주말 저녁에 다시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전화를 하여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어 봅니다. 한 학부모님께서 매주 아이의 공부와 공부 교재를 열어보신다고 한 것이 기억납니다. 분반공부는 잘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공부하였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자녀들의 믿음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이러한 대화 속에서 학생에 대한 기도제목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얼굴도 잘 모르는 학생에게 매주 전화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리고 전화소화기를 아래 내려놓았습니다. 타일러 보고 만나자고 제의도 해 보았지만 막무가내이기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으네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너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으며 목이 메었지만 나의 기도 속에 이 학생의 이름이 제일 먼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니다. 이러한 주중의 전화 심방을 통해 학생들과 친밀감이 쌓이게 되었고,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못한 마음의 고민들을 함께 기도하게 되었으며,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는 깊은 신뢰와 사랑을 줍니다. 그리고 이처럼 학생들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보다도 설교 말씀과 분반공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학교생활이나 가정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격려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처음 중등3부에 올라왔을 때 어린이와 같은 모습이었었는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가는 학생들을 보면서 목만 자라지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오늘날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안녕! 우리반 학생들이 사랑합니다.

### 진리와 생애

#### 사도행전(Acts)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③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그 기록 목적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무죄성을 옹호하기 위한 '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로마 법정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죄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로마의 법정과 헬라의 철학자들, 소아시아의 시골 농부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을 그들의 방식대로 다루면서 복음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이유도 없음을 변호하려는 '변증적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강한 반박에도 불구하고 구약이 자신들의 경전이며 유대교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설교는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이라는 종교적 중심지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라고 하는 정치적 중심지를 향해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는 '다락방'이라는 지극히 작은 곳에서 시작된 복음이 오늘날에는 세계 곳곳으로 옮겨지는 경이로운 확장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느 학자의 말대로 사도행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2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더욱더 신중하게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부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선교적 삶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김동하 목사 (홍익관 지도)

## 나에게 다가오신 그 분은

서 유 정 (중등3부)

내게 살면서 다가오신 그 분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아 주신 분

내 맘 속에 살면서 들어오신 그 분은  
항상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채찍질해 주신 분.

그분은 항상 저를 지켜보아 주셨는데  
저는 제가 힘들 때만 그분을 찾곤 하였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다가오신 그 분을 향해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신 그분은  
나에게 다가오신 그분은

정말 사랑합니다.

### 믿음의 학교에서

## 한나의 서원

에브라임 산골짜기에 사는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매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경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삼상 1:3). 엘가나는 두 아녀를 두고 있었는데 브닌나(진주)는 자식이 있고, 한나(은혜)는 자식이 없어 괴로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대히 못하게 하시니”(삼상 1:5). 사라(창 17:16), 리브가(창 25:21), 라헬(창 29:31), 마노아의 아내 등과 같이 한나의 불임(不妊)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성대히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모태(母胎)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한나는 자신의 무자(無子)함으로 브닌나의 고통을 건디다 못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 놓습니다(삼상 1:10, 시 51:17). 그리고 한나는 고귀한 서원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삼상 1:11). 한나의 서원은 나실인의 서원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만이 참다운 서원을 할 수 있지요. 한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서원은 자절로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회복시킨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체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잉태하기 위해 한 여인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요모하신 뜻이지요. 한나는 기도할 때가되는 애용해하고 슬퍼했지만, 기도한 이후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그녀의 얼굴이 변한 것입니다(삼상 1:18).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19절). “생각하다”는 말은 ‘과거부터 계속 지켜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일을 항상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고통의 간구를 들으시고 믿고 있는 한나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십니다(삼상 1:20).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한 인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한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셔서 힘들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셨고 한나는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지켜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없어서 당한 고통과 수모를 생각할 때, 힘들게 얻은 자식을 여호와께 전예 바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삼상 1:27), 하나님께 대한 서원의 존엄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헌신적인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삼상 1:28).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만, 특히 구속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권형일 기자)



모임

1. 장로 필요세백기도회  
일시: 25일(월) 새벽기도회 후  
장소: 배다나루
2. 안수집사회 화요일세백기도회  
일시: 25일(화) 새벽기도회 후  
장소: 배다나루
3. 한양위원회 월례회  
일시: 오늘 16:00  
장소: 한양위원회실
4. 교구위원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 당회실
5. 남녀전도부 월례회  
일시: 오늘 15:15  
장소: 전도위원회실
6. 권사 4지회 월례회  
일시: 27일(수) 오후 1부 예배 후  
장소: 영아부실

남녀전도회

1. 바울 5지회 월례회  
일시: 12월 3일(화) 18:30  
장소: 우리나루  
(☎508-8805, 011-782-2560)
2. 바울 6지회 월례회  
일시: 12월 7일(토) 17:00  
장소: 함술 화교구이
3. 바울 7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 407호
4. 베드로 9지회 월례회  
일시: 30일(토) 19:00  
장소: 중화중 삼오점(☎433-6555)
5. 베드로 11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육관 307호
6. 요한 5지회 월례회  
일시: 30일(토) 19:00  
장소: 산동가정부실
7. 요한 14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9:00  
장소: 장문영 집사대(양친구 목동5 목동2)  
320-508, ☎2642-9645)
8. 예수 7지회 월례회  
일시: 28일(목) 11:00  
장소: 둔촌동 대방빌딩
9. 예수 10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00  
장소: 교구모임 장소
10. 루디아 1지회 월례회  
일시: 25일(월) 10:30  
장소: 이숙희 집사대(☎554-7550)
11. 루디아 4지회 월례회  
일시: 28일(목) 11:00  
장소: 영아부실

12월 주일 및 수요일 예배 기도 담당

| 월  | 일  | 주일 예배 (장로) |     |     |     |     | 찬양 예배 (안수집사) |     | 수요일 예배 (권사) |    |
|----|----|------------|-----|-----|-----|-----|--------------|-----|-------------|----|
|    |    | I          | II  | III | IV  | V   | I            | II  | I           | II |
| 12 | 1  | 이철호        | 고재승 | 김의철 | 전홍렬 | 강철형 | 이용현          | 김순곤 | 이영숙         |    |
|    | 8  | 신상수        | 김은호 | 정운석 | 정창길 | 김단용 | 김동환          | 이명희 | 이남숙         |    |
|    | 15 | 노영한        | 이 훈 | 엄필성 | 강종길 | 차신득 | 정부조          | 강동화 | 김남진         |    |
|    | 22 | 최지윤        | 김영달 | 박영식 | 박철구 | 박찬섭 | 김영길          | 김연옥 | 이득혜         |    |
|    | 29 | 김종구        | 조진계 | 이하영 | 김진재 | 김영은 | 권병철          | 이근덕 | 정영옥         |    |

12. 루디아 5지회 월례회  
일시: 26일(화) 10:30  
장소: 영아부실
13. 루디아 9지회 월례회  
일시: 26일(화) 11:00  
장소: 박순례 집사대
14. 루디아 10지회 월례회  
일시: 21일(목) 11:00  
장소: 장복목 집사대(☎44-9064)
15. 루디아 17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 후  
장소: 제2교육관 4층
16. 마리아 7지회 월례회  
일시: 26일(화) 10:30  
장소: 주후 개별동지

발세

1. 김영자 권사  
오동중 집사, 오영주 집사의 모친, 11교구 펠  
등교구역 / 15일 밤세, 18일 장례
2. 황영녀 타교집사  
주남진 집사, 김달수 집사의 장모, 10교구 수  
유구역 / 19일 밤세, 22일 장례
3. 강진원 성도  
7교구 상대2구역 / 19일 밤세, 22일 장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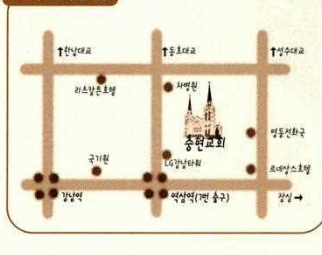
결혼

1. 이슬한 군(순래원 타교집사의 아들)과 김은  
연 양(이장정 권사의 딸, 12교구) / 30일(토)  
15:00, 서울대 호암병원홀

주 소 변경

1. 이용현 안수집사, 변경섭 집사  
장기도 용인시 성북동 723 성남야를 백산(☎  
501-1403, ☎351-306-1728
2. 현승조 안수집사, 유기준 권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80 청솔마을 유원·  
화인(☎205-022, ☎351-726-9376

교회 오시는 길



예배 안내

| 구분          | 시 간                  | 장 소 |
|-------------|----------------------|-----|
| 주 일 예 배     | I 오전 7:00            | 본 당 |
|             | II 오전 9:00           | 본 당 |
|             | III 오전 11:00         | 본 당 |
|             | (수배, 차곡동(동성교회))      |     |
| IV          | 오후 1:00(동성교회)        | 본 당 |
|             | 오후 5:00              | 본 당 |
| (홍문교도회는 별도) |                      |     |
| 찬 양 예 배     | 오후 5:00              | 본 당 |
| 금 요 예 배     | 1:00 ~ 11:00 오후 7:00 | 본 당 |
| 수 요 예 배     | 오후 7:00              | 본 당 |
| 새벽기도회       | 오전 5:00              | 본 당 |

기도원 안내

| 집 회  | 시 간      | 차 량                 |
|------|----------|---------------------|
| 최요집회 | 오전 11:00 | 버스: 오전 10:00 분당 일출빌 |
| 금요집회 | 오후 10:30 | 버스: 금요일집회 후 분당 일출빌  |

기타선 차량 운행: 월, 목요일 10:00 / 월, 화, 목, 오후 7:00 (종로경찰서 일출빌)

충헌중보의 창

- 1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므로 풍  
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  
도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  
한 통로로 사용하 주소서.
- 2 모든 교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혼에 대한 뜨거  
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  
유하게 하소서.
- 3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  
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  
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4 충헌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주  
어진 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  
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  
서.
-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  
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  
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  
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  
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  
어지게 하소서.
- 6 교구별 태신자 전도와 교  
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충헌교  
회가 민족복음화를 주체적으  
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구원의  
대대가 되게 하소서.
- 7 단기선교를 통하여 충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족  
속과 열방을 향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  
여 주소서.

이반주 새벽기도 담당

|     | 25(월) | 26(화) | 27(수) | 28(목) | 29(금) | 30(토) | 12/1(주일) |
|-----|-------|-------|-------|-------|-------|-------|----------|
| 설교자 | 김동하   | 서광진   | 류병희   | 나광영   | 이종대   | 김영훈   | 김학곤      |
| 기도자 | 안종옥   | 최상기   | 김연태   | 김병권   | 김홍홍   | 김팔자   | 안대순      |

직원 모집

충헌교회에서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운전기(1인승 면허소지자)
2. 자격  
세례교인
3. 제출 서류  
자필 이력서·주민등록등본·당회장 추천서(타교인인 경우)
4. 서류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헌교회 사무국 ☎ 552-8200

충헌교회

새·가·족·을·화·영·합·니·다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
| 772 | 송병하 | 7  | 소망부  | 전춘영(7)  | 778 | 김만장 | 15 | 장년3부 | 박필대(4)  |
| 773 | 박중순 | 7  | 장년1부 | 권영국(4)  | 779 | 오지훈 | 19 | 대학부  | 최효일(15) |
| 774 | 김장현 | 10 | 장년2부 | 이계문(7)  | 780 | 송연진 | 19 | 대학부  | 송원진(1)  |
| 775 | 김경철 | 11 | 청년2부 |         | 781 | 임미경 | 19 | 청년1부 | 임유규(7)  |
| 776 | 박미경 | 11 | 청년2부 |         | 782 | 최영진 | 4  | 요한   |         |
| 777 | 정순녀 | 13 | 장년3부 | 이희연(13) |     |     |    |      |         |

★ 충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등록목회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심·기·는·본·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사무진로

- 김의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 윤인현 최태원 엄필성 강도용 오정현
- 이 훈 남남수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 조진계 김종구 최무길 김진재 이창호
- 차신득 박영식 김팔장 이종식 이하영
- 이병옥 안종옥 임무진 이종섭 최기홍
- 이갑재 진홍용 전홍렬 이경우 김단용
- 황영일 한승국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 원운철 이현수 안동현 황만관 김구형
- 최윤덕 이계연 박달양 이태식 정태우
- 박종규 권영옥 조종환 배준식 김영달
- 이철호 박찬섭 최희윤 노영한 박철구
- 정정길 신상수 강철형 고재승 김영은

■ 부목사

- 이복대 정현민 김동화 서광진 박인기
- 여성기 류병희 노경록 이종철 김영훈
- 이국진 김교섭 이수근 이윤진 안창덕
- 방준영 나광영 정진호 김동덕 이성욱
- 고광현 김광종 원건광 김익환 김경수
- 장 훈 임원덕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 찬양감독 김양구
- 여전도사
- 정연희 신동자 윤운석 한영준 김연석
- 홍순애 이숙주 김팔자 안대순 김정진
- 조옥주 강덕필 김정진 장재구 최문실
- 전은희 김영은 김장자 이수경
- 단기선교
- 단기봉사선교사
- 협력선교사